

###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④ - 서울 길상사 시민선원

처음과 끝을 알리는 죽비. 서울 성북동 길상사 시민선원은 죽비를 치지 않는다. 선방 벽에 걸린 자그마한 자명시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매시간 정각에 울리는 시계 종소리가 재가선객들의 방선 시간을 알려준다. 때문에 길상사 시민선원은 죽비가 필요 없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가불자들이 선방 문지방을 닦도록 드나들어도 수행분위기는 좀처럼 흐트러짐이 없다.

자율 속에 엄격함이 배어있는 길상사 시민선원. 그럼 선원의 이 같은 가풍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임승스님이 있든 없든 스스로 '알아서' 가부좌를 뜨는 길상사 시민선원 속으로 4월 15일 들어가 본다.

# 50분 정진 10분 포행 죽비없이 자율수행

#### 자율 속 엄격함

"땡-땡-땡-"

오후 3시. 자명종이 3번 울리자 50분 정진이 끝난다. 곧바로 포행이 이뤄진다. 12명의 재가선객들이 선방 안을 조용히 걸기도 하고, 선원 앞 작은 꽃밭을 돌기도 한다. 물론 말은 없다. 묵언이다. 양손도 단전에 가지런히 포갠다. 차수(叉手). 스스로 묶은 말과 몸. 하지만 화두 하나만은 온몸으로 끌어안은 눈치다.

매시간 정시를 기준으로 10분간 갖는 포행이 끝나자, 자기 좌복에 앉는다. 다시 참선에 들어간다. 오후 3시 10분부터 50분간, 자기 내면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길상사 시민선원의 이런 '자율수행' 가풍은 선방 문에 붙은 '선원 청규'에서 확인된다. '출입시간은 매시간 정각으로부터 10분 사이. 늦게 도착하면 기다렸다가 다음 정시에 맞춰 입실한다'라는 청규가 선원의 엄격한 수행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뒤늦게 선원에 도착해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이성희(48·애함심씨)에게 물었다.

"시민선원인데, 왜 이렇게 청규가 엄격하니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이다. '50분 정진시간에는 들어오지도 나오지도 못한다'는 선원의 규칙. 길상사 시민선원이 지난 1999년 개원한 이후 7년간 고집스레 지켜온 전통이다.

때문에 길상사 시민선원은 방부 들이는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입방 자격을 참선 유경험자들로 제한한다. 그리고 철저한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가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자제는 바르게 호흡이 거칠지 등을 면밀히 살펴 최종적으로 방부를 준다. 현재 방부를 들인

20여 명의 불자들이 대부분이 수십년 넘게 실참을 해온 베테랑 수행자들이다.

#### "화두 몰입하리 망상 사라집니다"

포행 시간에 맞춰 선원 대중들에게 법담 시간을 갖자고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다. 선원에서 참선정진하면서 겪는 수행담을 듣기 위해서였다. 교육계 원로인 김중서(82·원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중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그러자 대중들이 할장으로 동의를 표현한다.

먼저 이곳 선원에 방부를 들인 지 4년째인 김일현(51·법륜원씨)가 말문을 연다.

"화두에 몰입하면 잡념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화두일념이 되면 주변의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잡념은 잡념대로 흘러 보내고 오직 화두와 하나가 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지요. 그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어 38년간 항공조종사를 지낸 최영정(74·벽파씨)가 말을 받는다.

"맞아요. 그간 동적인 운동을 즐겨오다 좌복에 앉다 보니 급한 성격이 누그러졌어요. 치성할 번뇌 망상을 참선정진으로 거뒀을 때면 '이것이 수행의 참맛이구나' 하고 환희심이 절로 나오요."

법담은 자연스럽게 일상 속 수행 이야기로 옮겨진다. 문교부 판수국장을 역임한 김해인(81·영산) 씨는 참선정진을 통해 마음속 '잡나'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참선은 그간 가졌던 일상의 일음일미들을 뿌리 채 뽑아내는 힘을 줬요. 그러면서 참선은 나와 진리가 하나 되는 길을 알려주지요. '내 마음 속 나 찾기'란 제 화

#### 우곡선원, 외국인 장학생 禪체험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5월 7-8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제6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참선교육 프로그램' 행사를 갖는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일반 중국 이란 미국 영국 등 세계 15개국의 정부조청석·박사 과정 외국인 장학생 80명에게 한국의 선을 체험케 하는 이번 수련회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더욱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대학생 10명, 재가불자 20명도 함께 참여하는 이번 수련회는 참선 강의 및 실수, 선기공, 발우공양, 사



재가불자들이 4월 15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시민선원에서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두가 성성하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면서요."

#### 매주 선어록 강의...선수행 인목 키워

길상사 시민선원의 특징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선어록 강에 있다. 30분씩 소참(小參)법문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어록 강의는 그간 <전등록> <몽산법어> <선가귀감> 등으로 불자들에게 선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고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법문하는 소참법문을 통한 선어록 강의는 대중들이 분발심을 일으켜 마음공부 진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석진(64)씨는 "선어록 공부 는 마치 선지식을 옆에서 전경하는 것처럼 마음공부에 도움이 된다"며 "마음이 태만하거나 느슨해질 때면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보약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선어록 강의는 재가불자들에게 실참실수의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선어록은 막연히 갖는 선에 대한 내면적인 생각들을 역대 선사들의 말을 통해 점검하는 공부법"이라며 "재가불자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공부 필답이를 스스로 관조하고 더욱 윤희정진할 수 있는 자극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길상사 시민선원은 또 집중수행 수련회를 개최해 재가불자들 수행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6시에 주말 선수련회를 열고 있다. (02)3672-5945

글·사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참예절, 108배 정진, 포행, 도량 및 아침예불, 흥천 수타사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www.zenkorea.org (02)2055-3111

#### 보리수선원, 직장인 주말수행

워킹사나 수행처 서울 보리수선원(주지 붓다락기타)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수행 프로그램'을 매달 한 차례 실시한다.

주말 수행 프로그램은 매회 오후 4시에 입제하며 이틀날 오후 5시에 해제한다. 일정은 4월 30일-5월 1일, 5월 21일-22일, 6월 11일-12일 등. 매회 마감은 목요일 오후 9시. www.borisu.or.kr (02)517-2841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15> '조주무자' 때문에

초심사 시절 처음으로 윤희정진을 하러 갔다. 그 때 삼천배를 하고 나서 받은 화두가 조주무자(趙州無字)였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의심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의심이 무엇인 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천허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억지로라도 자꾸 의심을 일으키다보면 나중에 저절로 의심이 일어나게 될거야." 억지의심으로 일주일간 밤낮 앉아서 윤희를 쓰던 기억이 새롭다.

'조주무자' 공안은 가장 인기있는 화두이다. 통계를 내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이렇고' 화두와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공안이 아닌가 한다.

대해종교가 그의 스승인 원오곡근 선사의 <벽암록>을 불태워버리고서 간화선을 주장하면서 대중화시킨 공안

설명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백은 선사의 <생든 몸은 이렇게 다스려라>는 한글번역본도 선병(禪病)에 대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갖가지 경계에 대한 치유책은 선어록 곳곳에 보인다.

그런데 마(魔)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지를 체험한 선사가 있다. 운문종의 탁산연필 선사 회상에서 정진하던 응진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근기가 매우 예리하였으며, 또 '무자'를 오랫동안 들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상한 경계가 나타났다. 개가 태양만한 입을 벌리고서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겁이 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개를 피해 달아났다. 옆에



##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화두에 매진 커다란 개 입속으로 달려들어 견성

이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수행자들이 <벽암록>을 외우고는 각본(各)에 의거하여 서로 선문답을 나누는 것이 당시 선가의 일반적 풍토였다. 모두가 선사야 계승을 받았고 뽑아내는 선시작이었다. 급기야는 누가 영무세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이른바 '송고문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모든 공안이 사구화(死句)화되어 버린 것이다.

'종문(宗門)의 제일서(第一書)'가 모두의 눈을 가려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해버렸다. 가만히 있을 때에 스님이 아니었다. 하늘같은 스승의 책마저 불태워버리고 해설서가 없는 '무자' 공안을 통해 간화선을 다시금 제창해 조사선의 본래정신을 되살렸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경계를 만나게 된다.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옆길로 새거나 병을 얻거나 공부보다 이상 진전이 없게 된다.

<응엄경>에서 가장 인기있는 풀이 가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변마장(佛魔障)'이다. 정진하면서 나타나는 갖가지 장애에 대한

서 지켜보고 있던 대중들이 그 까닭을 묻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스승에게 물어보길 권해 방장인 탁산연필 선사에게 올라갔다.

"두려워할 것 없다. 단지 정신을 바짝 차렸다가 개가 입을 벌리거든 달려가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러면 없어질 것이다."

응진 스님은 그렇게 하리라 마음먹고 '무자'를 들었고서 앉아 있었다.

발증이 되어 개가 다시 나타났다. 그 큰 입을 썩 벌리고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왔다. 그러자 응진 스님은 가다렸다는 듯이 힘차기 달려가서 그 입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팩! 한참이 지났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그곳은 나무 껍질 속이었다. 이에 확연히 깨닫고서 뒷날 문수사에 나아가서 선공을 크게 떨쳤던 것이다."

나도 '무자'를 들고 있다가 보신방이 한 그릇 눈앞에 나타났던 어떻게 해야 하나?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원필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개 천지조화 벽

###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호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치셨는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까?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중앙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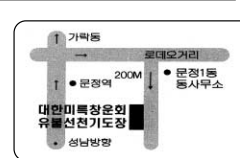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童通師)이 직접 삼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윤희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 윤희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제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료)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힘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티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 最上情報心身復生

###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천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활된 흥인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나니!